



〈윤석민〉



마운드에 비상 걸린 KIA, 윤석민이 '조커'로 투입 된다. 선발 로테이션에 공백이 생기면서 힘겨운 일전을 벌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3승을 목표로 문학과 잠실로 원정 6연전을 떠났다.

마운드에 비상 걸린 KIA는 6연전 첫 경기에 평균자책점 1위(2.01)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을 투입하면서 기선 제압에 나서지만 이후 경기가 고만이다.

선발 '조커'... 마무리는 집단 체제 KIA, SK·LG와 원정 6연전

현재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고 있는 선수수는 양현종에 이어 로페즈-구본승-곽정철 4명뿐이다. 그나마도 4명의 선발을 운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게 많다.

구본승이 6승 행진중인 것에 반해 지독히 승운이 따르지 않으며 1승에 그친 로페즈의 심적인 부담이 부쩍 늘었다. 어범가 온전치 않은 구본승은 1주일에 한 번만 마운드에 올라 관리해주고 있다.

신에 양현종과 곽정철이 '싱싱투'로 순항중이지만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에 합류한 만큼 이들에게 최대한 휴식을 부여하면서 등판을 시키고 있다.

같은 바쁘지만 조범현 감독이 선수들을 무리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만큼 마운드 계산이 복잡하다.

자리를 비운 투수들의 복귀 소식도 요원하다. 서재응은 오는 29일 2군 경기에서 등판해 컨디션을 점검할 예정이고, '마무리 휴업' 중인 한기주는 24일 2군 경기에서 첫 등판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이범석도 재활이 한창이면서 당장 마운드에 힘을 보태줄 선수가 마땅치 않다.

Table with 7 columns: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It lists the top 8 teams in the KBO league as of May 25th.

조범현 감독은 일단 마운드 강화를 위해 좌완 진민호를 올리고 내야자원을 줄일 계획이다. 최후의 필승 카드로는 윤석민을 내세울 생각이다.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선의 힘이 절실하지만 이 부분 역시 고민이다. 타자들이 경기 초반부터 공세를 펼치면서 볼펜의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하지만 요즘 타선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17일 더블헤더를 치른 뒤 21일에는 빗속에서 LG와의 5시간 58분간의 대혈투를 벌였던 타자들은 체력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김덕현 세단뛰기
<광주시청>
2009 그랑프리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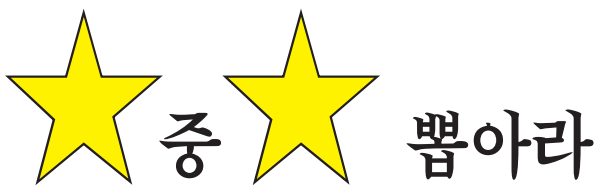
박태경 110m허들 銀

광주시청 김덕현이 아시아 최고의 세단뛰기 선수로 도약했다. 김덕현은 지난 24일 중국 소주시에서 열린 2009 아시아그랑프리 육상 1차대회 세단뛰기에서 16m 84를 기록, 중국 카오슈오(16m 68)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덕현은 지난 2007년 방콕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17m 02로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동메달을 기록했었다. 벌교 출신인 김덕현은 벌교 삼광중학교 시절 단거리, 중장거리를 가리지 않고 뛰다 광주체고로 진학해 1학년 때 멀리뛰기로 전향했고 2학년 때 세단 뛰기로 종목을 변경했다.



광주시청 김덕현이 지난 24일 중국에서 열린 2009 아시아그랑프리 육상대회 세단뛰기에서 16m 84를 기록,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오늘부터 프로야구 올스타 인기투표 시작

7월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올 '별종의 별'이 가려진다. 26일 전국 7개 야구장에서 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올스타를 선발하는 '베스트 10 인기투표'가 시작된다. 7월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를 통해 동군(SK·두산·롯데·삼성)과 서군(KIA·한화·히어로즈·LG) 양팀의 구단 추천선수 총 최대 득표 선수 10명씩 총 20명의 올스타가 선정된다.

강수연 우승컵 날린 1m 파퍼트

코닝클래식 18번홀서 뼈아픈 보기
청아니에 1타 뒤져 아쉬운 준우승



강수연(33·하이트·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닝클래식에서 어렵게 우승컵을 넘겨 줬다. 강수연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코닝의 코닝골프장(파72·6천223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청아니(대만)와 우승 경쟁을 펼쳤지만 18번홀(파4)에서 나온 뼈아픈 보기로 준우승에 그쳤다.

강수연은 18번홀에서 1m짜리 파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우승컵을 청아니에게 넘겨줬고 7타를 줄이며 추격한 크리머와 2위 자리를 나눠 가져야 했다. 김승희(21)와 한국계 비키 허스트(19)가 공동 5위(17언더파 271타), 정지민(25)과 이선화(23·CJ)가 공동 9위(16언더파 272타)로 대회를 마쳤다.

신일고 청룡기 고교야구 결승 선착

신일고가 제64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신일고는 25일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계속된 준결승전에서 서울고를 9-2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신일고는 1997년 봉곡중(LG)이 재학 당시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1회 이재우의 중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신일고는 2회에는 상대 유격수의 실책을 틈 타 2-0으로 앞섰다.